



김천 직지사 자하문. 측면 공포를 연결한 부재가 부러져 있다.



공주 대원암 칠성도. 습기로 인해 불화의 색상이 훼손돼 흉한 모습이다.



곡성 태안사 보제루. 창방 가운데부분이 부러져 휘어진 듯 보인다.

비지정문화재 ‘푸대접’ 더이상 안 된다

불화·전적류 습기·해충에 노출, 건축물 보수 뒷전 지자체 관리한계... 예산부족도 방치·부실공사 원인

보존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지정이라는 이유로 많은 문화재가 원형을 잃어가고 있어 비지정문화재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성정, 이하 조사단)의 대전·충남지역사찰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7천714점 가운데 지정문화재는 국보 9점, 보물 49점 등 218점에 불과하다. 절대 다수의 문화재가 ‘비지정’ 상태로 외면당하는 실정인 셈이다. 조사단은 이를 비지정문화재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154건 2천458점을 지정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존 최고(最古) 목불일 가승상이 밝혀지며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개심사아미타불좌상(12~3세기 추정)조차도 비지정문화재라는 사실만 봐도 지정 여부가 곧 문화재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단박에 알 수 있다.

동산문화재 가운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불화나 전적·경관류, 습기와 해충에 취약한 불화·전적·경관은 대개 상태가 좋지 않아 멀쩡한 것이 오히려 드물 정도다. 많은 불화가 습기나 곰팡이 또는 향과 촛불로 인한 그늘음과 촛농으로 본래의 빛깔을 잃어가고 있다. 또 경관은 판각(경판) 고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사찰에서 한 곳에 쌓아두는 식으로 보관하고 있어 썩거나 해충과 쥐로 인한 손상이 심각하다.

건조문화재의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법당 등의 주요건축물은 지정된 사례가 많지만 요소체나 루, 일주문 등은 중요성이 간과돼 충분한 가치에 비해 지정된 경우가 드물다. 직지사 자하문은 대표적 예다. 직지사 자하문은 구조기법과 조성미가 탁월하고 이른 시기(17세기)에 세워진, 대표성을 띠는 일주문임에도 지정되지 못한 탓에 푸대접을 받고 있다. 측면 공포 연결 부재가 꺾여 광방 위 귀포가 바깥쪽으로 쏠리고 있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태안사 보제루 또한 창방이 부

러져 서까래가 처져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창방은 맞배집에서 특히 중요한 부재로서, 이것이 부러지면 건물이 한쪽으로 일그러져 붕괴까지도 우려된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보수 예산은 지정문화재에만 집중되고 있다. 비지정문화재는 지정문화재의 ‘주변정비’ 차원에서 공사가 이뤄지거나 전통사찰 지원비 명목으로, 현실적인 보수비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거의 전부다. 따라서 원형보존에 대한 관심은 희박하기 마련이고,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예도 잦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소홀을 악용하는 사찰도 있다. 재정상태가 좋은 일부 사찰에 국한된 이야기이나 비지정문화재는 공사 시행에 제약이 적다는 점을 이용, 보존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어버리고 크게만 지어 사역(寺域)을 망가뜨리는 예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심지어는 ‘불사’를 위해 지정을 기피한다는 말까지도 있다.

이처럼 비지정문화재가 시련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화재청 차원의 보존대책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문화재청 한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관리하고, 비지정문화재 관리는 지자체의 의무로 돼 있어, 지자체가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해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며 “가치 있는 문화재에 대한 지정확대를 통해 지정문화재로서 관리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현재 동산문화재에 한해 조계종문화유산조사발굴단이 시행중인 사찰문화재일제조사 외에 급근중으로 건조문화재 일제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지정확대가 하나의 대안이라는 하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한 관계자는 “지정 절차가 복잡해 조치를 필요로 하는 모든 문화재에 적용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지정 여부를 떠나 문화재 관리의 국가의 책임이라는 의식을 갖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news.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

연재를 시작하며

사람마다 나이가 먹는 것,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 다른 감회를 느낄 것이다. 불교의 시간관은 인도의 전통적인 시간관인 순환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진행적인 시간관에 비해서 순환적인 시간관은 원과 같이 시작과 끝이 따로 없이 돌고 돈다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어느 시간관이 더 옳은가를 알기는 참으로 힘들다. 현대 물리학은 우주에 관한 한은 진행적인 시간관에 손을 들어주는 것과 같이 보인다. 즉, 우주가 매우 짧은 시간에서 생겨났으며, 이때부터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작점이 있어서 이를 기점으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모델이 멀리 있는 별빛일 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거리가 빨리 떨어진다는 관측과

과는 다르게, 빛의 속도는 관측자에 따라서 일정하다. 달리는 기차에서 보면, 옆에서 달리는 기차가 서 있는 듯이 보이지만 빛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험이 통하지 않는다. 시간 역시 빨리 달리는 로켓에서는 더 천천히 흐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칸트가 분류한 진리, 즉 우리의 경험과 관련이 없다는 순수 진리, 예를 들어 직선은 공간상의 가장 가까운 두 직선이라는 진리 역시 칸트의 머리에서 나온 한계가 있는 진리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공간 역시 중력에 따라서 휘기 때문이다.

현대 과학은 서양 문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학은 서양의 전통, 즉, 논리를 숭상하는 철학적 전통에서 생겼다. 철학(philosophy)이라는 단어

논리 뛰어넘은 진리 추구 과학 한계 극복 종교·철학 왜소화된 이 시대 불교 ‘새 빛’

일치하고 있다. 마치 풍선이 부풀어 질수록, 풍선의 그림들이 서로 빨리 멀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은 특이점, 즉 시간이 생기기 시작하기 전에 대해서는 함묵하고 있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아야 하는 항목 중에서 우주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든다. 이 가르침에는 많은 의미가 있으리라.

차라리 깨달음을 위한 노력을 하는 편이 낫다는 실용주의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깨달고 나면 그러한 질문들이 자연히 해결된다는 진리에 대한 종교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어느 한 면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면을 다 말씀하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거한 생각들이 얼마나 진리에서 먼가를 현대과학이 알려주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빛의 속도에 관한 것, 시간에 관한 것, 공간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경험

자체가 앞을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 앞이라는 자체가 철저한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통에서 수학이 생기고 경험적 관측을 수학화하고, 수학이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도록 함으로써 위대한 과학과 철학의 전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과 기술이 우주 존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인간의 인성과 예측 가능한 삶을 보장해 주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진화의 법칙을 제어하고자 하는 생명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21세기기를 지배하는 물질 문명의 새로운 논리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종교 및 철학이 미치는 영향이 왜소화하는 시대에 부처님과 성인들의 가르침이 전 세계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빛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빛이 현대 과학기술과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불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박영준 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로 서울대 교수불자연합회 ‘불이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미국 매사추세츠대학에서 전기공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 나노응용시스템 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석조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 생긴다

문화재청 중장기 대책 마련... 감은사탑 올 해체보수

유형준 문화재 청장이 지난 연말 ‘선언’한 경주 석탑 해체복원 전면재검토 방침에 입각한 보존관리대책(이하 대책)이 나왔다.

현재 문화재청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요석조문화재보존관리대책’에 따르면 국보 제112호 감은사지3층석탑은 애초 계획대로 해체·보수에 들어가고, 불국사 다보탑은 조사연구를 거쳐 2006년에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또 국보 제21호 불국사 석가탑은 조사연구를 거쳐 보수 방향을 검토해 2008~2009년에 확정지를 예정이며, 국보

제20호 정림사지 5층석탑은 보존 및 유지에 초점을 맞춰 2006년까지 보존처리, 이후에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감은사지 3층석탑은 옥개석이 부분탈락하고 옥개받침석이 파손되고 기단부와 옥개석에 판상바리가 나타나 흉한 상태며, 석가탑은 기단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균열이 생기고 내부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발

견되는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석탑 보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중장기적으로는 석조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를 신설해 국가 지정 석조문화재에 대한 수리 및 점검, 보존관리기술 연구에 주력한다는 복안도 세워놓았다. 이를 위해 건축, 미술, 보존과학, 토목, 지방공학 등 전문가들로 종합팀을 구성하고 전담 연구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사업 시행 전에 시민과 국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NSF
공주대학교
ISO 9001:2000, HACCP:08
2억 원 상당 계약금 지급

SAMSUNG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amani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amani 토종오가피

심amani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amani 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리보세요.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amani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주인명F&B
HYUN PUNG F&B CO., LTD.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Sale!

과일의 왕 두리안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두개 6.5KG이상
한박스 13KG이상

55,000 원

100,000 원

후식으로 광고소환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www.durianshop.com

인터넛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후레쉬 망고
입고되었습니다.